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소득세에 관해 이해하는 일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그 문제를 만든 생각과 동일한 수준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자신을 진리와 지식의 판관으로서 높이려는 자는 신들의 조롱으로 파멸할 것이다.

위대한 영혼은 항상 평범한 마음의 반대편에 있다. 평범한 마음은 자신의 의견을 옹기 있고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인습에 얽매인 편견과 선택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우주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보다 크고 좀 더 나은 것이어야 한다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방정식이 정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치는 단지 현실의 문제이지만 수학 방정식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채식으로의 진화만한 것이 없다.

창조적 표현과 지식의 즐거움을 깨우치는 것은 교사 최고의 예술이다.

모든 것은 가능한 간단하게 설명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해서는 안된다.

만약 A가 인생의 성공이라면 $A=x+y+z$ 이다. x는 일이고, y는 노는 것이고, z는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측정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모든 것이 다 측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단의 완벽함과 목적의 혼동이 우리 세대의 특징인 것 같다.

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understand is the income tax.

The significant problems we have cannot be solved at the same level of thinking with which we created them.

Whoever undertakes to set himself up as a judge of Truth and Knowledge is shipwrecked by the laughter of the Gods.

Great spirits have always found violent opposition from mediocrities. The latter cannot understand it when a man does not thoughtlessly submit to hereditary prejudices, but honestly and courageously uses his intelligence and fulfills the duty to express the results of his thought in clear form.

When you look at yourself from a universal standpoint, something inside always reminds or informs you that there are bigger and better things to worry about.

But to me our equations are far more important, for politics are only a matter of present concern. A mathematical equation stands forever.

It is my view that a vegetarian manner of living by its purely physical effect on the human temperament would most beneficially influence the lot of mankind.

It is the supreme art of the teacher to awaken joy in creative expression and knowledge.

Everything should be made as simple as possible, but not one bit simpler.

If A is success in life, then A equals x plus y plus z. Work is x; y is play; and z is keeping your mouth shut.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counts, and not everything that counts can be counted.

Perfection of means and confusion of ends seems to characterize our age.